

일회용품 없는 전북, 전국 환경정책 이끌다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에 마무리... 탈플라스틱·순환경제 실현, 도민 참여와 협력 강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환경단체 관계자와 도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해 자원순환 사회 실현의 중요성을 함께 나눴다.



지난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 안호영·이원택 국회의원,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의 날은 지난 2009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최돼 왔으나,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이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행사는 김제 새로보미 축제와 연계해 진행돼 전국 최초의 자원순환형 환경축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지난 2월 '일회용품 없는 전북' 선포식을 열고 도민 인식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의 정책 방향을 제시

했다. 이를 기반으로 김제시와 협력해 이번 행사 유치를 도전했고,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기념식은 식전 문화공연과 자원순환 캠페인 영상으로 시작해 포상 수여, 환영사, 축사, 기념사 등 공식 절차가

이어졌으며, 참석자들은 자원순환의 필요성과 과제를 공유했다.

기념식 외에도 △자원순환 체험부스, △친환경 제품 전시, △업사이클링 체험, △어린이 그림 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도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쓰레기 종량제 30년 특별전과 △일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등 안내행사도 마련돼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알기 쉽게 전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30년 전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시작된 자원순환의 여정을, 이제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로 확장해 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홍석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환영사에서 "일회용품 없는 전북은 행정의 선언이 아니라 도민의 실천으로 완성된다"며, 생활 속 자원순환 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모두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전북자치도가 전국 환경정책을 선도하는 실천형 모델을 제시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축제 운영과 탄소중립 실현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만호 기자

새민금청, 30일까지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새민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9월 5일부터 30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생활과 업무 전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려고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개인정보 생활 실천 수칙 7가지 배너 게시로 중요성을 강조, △개인정보보호 퀴즈 맞추기로 직원들의 참여와 흥미 제고, △홍보 콘텐트를 청 누리집에 송출하여 자를 실천을 다짐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김의겸 새민금개발청장은 "개인정보는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이며 이를 올바르게 보호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라면서,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모든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민금개발청은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과 안전한 관리 체계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태양광 패널 재활용업체를 찾은 김성환 환경부장관

태양광 패널 재활용업체를 찾은 김성환 환경부장관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가운데 태양광 패널 재활용업체인 전주 석청코리

아를 찾아 김관영 도지사와 재활용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아를 찾아 김관영 도지사와 재활용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전북 농생명 미래, 후계농업 경영인들이 만든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자치도대회 성료... 우수 후계농업인 시상·스마트농업 상생협약 등 진행

전북 농생명산업의 내일을 책임질 후계농업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미래 비전을 다졌다.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대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정읍 내장산문화관광장에서 열려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후계농·청년농의 역할 재정립과 농업·농촌 현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회원 간 교류와 단합을 목적으로 열렸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와 정읍시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관계자, 최홍식 중앙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와 도내 14개 시군 한농연 회원이 함께했다.

둘째 날 열린 기념식은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우수후계농업인 도지사 표창 4명과 장관상·농진청장상 등 유공자 시상 △LS엘트론-한농연 상생협약 △희망농촌·농업선포식 및 결



'제18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특별자치도대회'가 지난 3~5일 정읍 내장산문화관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문 낭독 △고향사랑기부제 비전 퍼포먼스 등이 이어졌다. 아울러 첨단 농기 사, 이학수 정읍시장, 임승식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관계자, 최홍식 중앙연합회장 등 주요 인사와 도내 14개 시군 한농연 회원이 함께했다.

이훈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북도연합회장은 "한농연 회원의 뜻과 노력을 모아 전북농업의 미래가 되고, 농촌의 희망이 된다"면서 "특히 동학농민혁명의 혼이 깃든 정읍에서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오를 자리를 통해 책임과 애정을 다지고, 서로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농업의 혁신과 농업인의 권익 향상에 앞장 서온 한국후계농업경영인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전북이 미래먹거리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 육성, K-푸드 육성정책, 농생명산업지구 육성 등 농정 대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K-문화를 홍보하는 후계올림픽 유치 여정에도 후계농업경영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제3차 청렴정책조정회의 열려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성과 중간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공직자의 청렴한 자세를 통해 도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전북자치도 구현을 위한 강력한 청렴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제3차 청렴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에게 청렴은 최우선의

가치임"을 강조하고 "전 직원이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행정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부패취약분야 개선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올해 7월 청렴윤리팀을 신설해 부패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도개선 사례도 공유됐다. 회계 분야에서는 '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와의 부정집행 사전 방지', 후생복지 분야에서는 '장기근속자 및 퇴직 예정자 국외여행 경비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근절' 사례가 소개되며 실효성 있는 개선 의지가 강조됐다.

/이만호 기자



지난 5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문화관광 분과회의'가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전주 하계올림픽 문화관광 분과회의 개최

문화예술·관광·학계 전문가 모여 문화자산 활용 방안 모색

도민 참여 홍보캠페인·관광 인프라 확충 등 핵심 과제 제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문화관광 분과회의'를 열고, 올림픽을 계기로 전북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화예술계, 관광 분야, 학계 등 주요인사가 참석했으며, 전북이 지닌 전통문화와 음식, 관광 자원을 국제무대에서 차별화된 강점으로 발전시킬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전북 문화의 글로벌 확산 전략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범도민 참여와 홍보 캠페인 등 핵심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에 맞는 관광 인프라 확충, 도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인 추진 방안이 활발히 제안됐다.

참석자들은 "전주는 한옥마을, 판소리, 비빔밥 등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고

유한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강점을 올림픽과 연결한다면 전북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유희숙 전북자치도 하계올림픽 유치 단장은 "올림픽 유치는 단순한 체육행사가 아니라 전북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성원이 모일 때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큰 꿈도 현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캠페인과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내 각 분과회의를 정례화해 문화·관광뿐 아니라 교통, 환경, 지역경제 등 다방면에서 유치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제2회 추경 1조8504여억원 확정

임시회 마무리... 관광·도시미관·치우개선 등 제언 이어져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지난달 26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27회 임시회를 지난 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현안 업무 보고 청취와 현장 방문을 실시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는 당초 집행부가 요청한 1조8,507억 원인 가운데 2억8,470만원을 삭감한 1조 8,504억여원을 확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복지 증진을 중점에 두고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25건의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시의 다양한 현안과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송미숙 의원은 월명동의 근대문화유산들을 활용한 감성 관광으로의 전환과 군산복합체육관의 보존 및 관광객원화를 제안했다.

나종대 의원은 도심지 내 장기 방치된 개인 소유 토지 문제 해결과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한 시민 편의 증진을 촉구했다.

환경보 의원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임금 기준 현실화를 요구했으며, 이연화 의원은 교통행정의 불법 주차 과태료 부과 과징금 위법을 지적하며 절차 준수와 시민 구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설경민 의원은 최근 완화된 요건에 맞춰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촉구했고, 김영자 의원은 급증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우종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현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 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 건의안을 포함해 총 27건의 부의안건이 처리됐다.

군산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고 평가된다.

/군산=김민호 기자

완주군의회 의장, 국무총리실 방문

행정 통합 반대 건의문 전달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안시임 부내외장, 송병주 회장 등 지역 대표들과 함께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만나 군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면담에서 유의식 의장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군민의 뜻과 상관없는 정치적 통합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지난 3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행정 통합 불결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같은 날 유 의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며 군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 등이 담겼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이번 통합이 네 번째 시도임을 재차 확인하며 "통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민 갈등의 장기화가 우려된다"면서 "이미 완주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된 만큼 이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충실히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 미래는 군인이 결정해야 하며, 완주가 자율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독자적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세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 다수가 전주와의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완주=염재복 기자